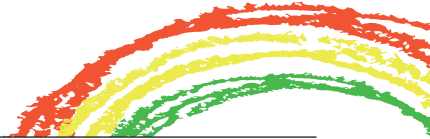


소아암·이.의 선샤인 프렌즈



Good Morning Everybody

- 04** 인사말씀 (고복희 이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정보지원실 본부장)
- 설레임과 행복을 가져다 준 한빛

Good Morning Family Event

- 06** 2021 미니운동회 - 온라인 미니운동회 온니포유
08 2021 가족캠프 - 우리 가족의 일상에 찾아온 특별한 하루
10 2021 송년잔치 - ON AIR.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12 제2회 그림페스티벌 - 꿈을 꾸는 스케치북

Good Morning Sunshine Friends



- 14** 바이탈스튜디오 -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미소를 담아
16 권용식후원자 - 용기를 잃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18 천사유치원 - 나눔을 이어가는 천사유치원
20 서대문문화체육회관 - 소아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22 이삭회 - 소아암치료의 따뜻한 동반자 이삭회
24 늘해랑 - 사랑으로 완성된 곳즈
26 본아이에프 - 넓고 깊은 사랑의 마음
28 더메리프로젝트 - 12월의 산타
29 치료비지원사업 - 소아암 아이들을 응원하는 방법
30 한국오노약품(주) -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두 번째 나눔
31 한국소아암재단 - 웃으며 나누는 반가운 선물
32 의료진이야기(박미나코디네이터) -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Good Morning My House Story

- 34** 하우스 이용자 수기 (마리암 어머니)
- 하우스는 우리 가족의 행운

Good Morning Hanbit

- 36** 2021 한빛 NEWS
38 2021 후원 NEWS
42 2021 결산현황
43 2021 후원자 명단
44 2021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46 후원안내 및 모집
47 정기후원(CMS) 신청서
48 포토에세이
49 개인정보변경 및 이용신청안내



설레임과 행복을

가져다 준 한빛



따사로운 햇살이 그리고 사랑살랑 부는 바람이 저의 마음을 설레게하는 봄날입니다.

‘소아암NGO한빛’과의 소중한 인연 또한 제게 설레임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더 깊은 학문이 필요했고, 그렇게 만난 동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으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준비했고, 드디어 2019년 11월 19일에 연세암병원에 그 마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소아암NGO한빛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면서도 소아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처음에는 소아암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린 환아들과 가족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한 채 봉사자 입장으로 다가감에 혹시 실수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는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며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우였습니다.

봉사자분들과 소통을 하며 22019 온드림 여름힐링캠프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빛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아들, 딸을 가진 부모로서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직장생활을 한다면 잘 챙겨 주지도 못했지만 마치 그것이 최선인 듯 아이들에게 부족하게 대했던 일 등 그 시절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지는 겸손과 배려와 함께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빛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 순간을 저의 아이들과도 나누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작으나마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후원을 하기로 마음먹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의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실천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아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눔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서로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게 마음의 풍족함을 일깨워준 한빛이 더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며, 저도 한빛의 일부분에서 미약하나마 계속 함께해 나가려 합니다.

한빛과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려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소망해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정보지원실 본부장

소아암NGO한빛 이사

고복희



2021 소아암가족 미니운동회

온니유!

「온라인 미니운동회 FOR YOU」

매년 5월이면, 소아암NGO한빛에서는 소아암아들과 가족들, 의료진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동장에 모여 신나는 운동회를 했습니다. 올해의 5월도 참으로 날씨가 좋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벗을 수 없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도 조심스런 일상을 지내고 있었기에 함께 모이는 운동회는 올해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2020년에는 운동회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운동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모여서 얼굴 보고 웃으며 안부를 나누며 운동회라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물론 운동장에서가 아닌 온라인이었지만요. 가족들이 화면속으로 입장하는 순간, 정말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각 가정별로 화면상으로 보이는 속도차가 있어서 운동회처럼 운동경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게임으로 토크와 제리팀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은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할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챙겨야 했고, 참여하는 가족들에게는 행사참여에 필요한 물품을 넣고 정성스러운 메시지와 함께 박스로 준비하여 각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운동회가 시작되자 단체티를 입고 머리띠를 하며 열



면 응원과 함께 치열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정말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며 화면이 하나둘씩 꺼질 때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의 여운

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같은 시간이었던 오늘의 여운이 내년에는 운동장에서 손을 흔들며 나누는 헤어짐의 인사에서 오는 여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나 금금했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참여했습니다.”
- “끝나는 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 “모두 그리웠는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 “소중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정말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느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고!!”
- “선물 포장까지 정성스레 예쁘게 해서 보내주셔서 넘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 했어요.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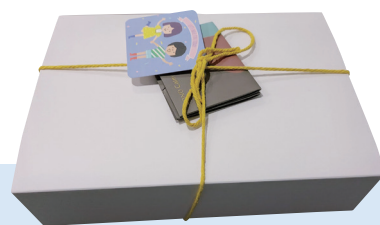
-운동회 참가가족 후기 중-



2021 소아암가족 캠프

우리 가족의 일상에 찾아온 특별한 하루 온라인오프라인

현대차정몽구재단과 함께하는
2021 소아암 온드림 어린이힐링캠프



매년 진행되던 가족캠프를 위한 회의가 이렇게도 여러차례 진행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제는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젠 함께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다가도 상황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하기를 여러 차례. 가족캠프의 진행 가능성도 예측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로 지쳐있을 소아암 치료중인 아이들과 가족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은 논의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2021년 10월, 소아암 온드림 어린이힐링캠프를 개최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말이죠.

코로나의 위험상황을 최소화 하면서도 가족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오프라인 활동은 가족단위로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각 가족들의 활동영상을 나누고 미션수행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하고 게임도 즐기고, 의료진과 완치자와 대화하는 시간도 함께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의 힘들음을 토닥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프만큼 순식간에 접수마감이 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지쳐있었다는 것이라 생각이 드니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번 캠프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평일의 풀빌라와 주말의 호텔 중에서 가족들이 서로 희망하는 컨셉을 선택한 1박2일 일정과 온라인으로 한날 한시에 다함께 만난 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매년 소아암 어린이 힐링캠프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현대차정몽구재단 덕분에 이번년도 역시 뜻깊은 만남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진분들과 아이들 곁에서 늘 함께 하며 힘이 되어주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힘든 치료과정을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대견한 아이들이 있었기에 함께한 시간들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코로나바이러스와 소아암에 맞서 싸워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너무 대견하고 힘껏 응원합니다! 2022년 우리들의 만남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부디, 직접 얼굴을 보고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캠프기간 동안 우리가족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지금 이순간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ZOOM으로 다른 가족분들과 의료진, 완치자분들도 함께 하면서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순간일지라도 캠프를 통해 웃음과 용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 에너지 듬뿍 받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좋은 여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힐링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캠프 참여자 소감 중-

2021 소아암가족 송년잔치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겨울, 우리들의 감성충만~힐링타임이 온(라인) 대(모여요)!!-

ON AIR.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환한 불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12월, 우리들의 송년잔치가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송년잔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새로운 송년잔치의 장을 열었는데요, 이번 송년잔치는 무려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수가 없어야되는 온라인 생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NG없이 몰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하기에 상황마다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놓고, 딱맞는 타이밍에 음악도 틀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중간에 깜짝 방문한 산타까지도 긴장하며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생소하지만 즐거운 긴장감을 선물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온라인 생방송 송년잔치가 시작되어 소아암아 이들과 가족, 완치자, 의료진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소원과 사연, 신청곡을 함께 나누며 힘이 되어주고 아이들의 멋진 코스튬페스티벌과 장기자랑도 함께 보며 많은 박수와 시상식의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송년잔치를 축하해주는 축하인사와 축하공연, 아이들을 위한 산타의 선물, 캐리커처도 함께 했습니다.

1년동안 힘든 치료과정을 잘 이겨낸 우리 아이들과 가족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년잔치를 즐기는 시간동안 감성충만하고 힐링충전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내년에도 마음 따뜻한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암NGO한빛 송년잔치 생방송 라디오 편성표]

채널 ZOOM 023 142 0675

- 1부 14:00 신인걸그룹 '라잇썸'의 축하인사
“내가 주인공1 - 코스튬페스티벌”
“함께 응원해 - 우리들의 소원”
“산타 깜짝등장 - 산타도 함께 응원해!! 산타의 선물도 받아주세요~”
- 2부 15:20 작곡가 '한수민'의 축하공연 <피아노연주 *블루밍 드림>
“내가 주인공2 - 장기자랑”
“함께 위로해 - 우리들의 사연”
“산타 깜짝등장 - 루돌프를 찾아주세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밝히는 루돌프~”



<소아암NGO한빛 송년잔치를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캐리커처 '시간을 담다' 이수연작가, 오승현, 안지명
- 축하공연 한수민작곡가
- *블루밍 드림 피아노연주 작곡가 한수민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암 완치자 자조모임인 기린아, 꿈드림, 그리고 한수민작곡가가 소아청소년암과 투병중인 아이들을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해 만든 싱글앨범입니다. 12월2일(목) 국내 음원사이트에 오픈되었습니다.

제1회 2021 알록달록 그림 페스티벌

꿈을 꾸는 스케치북

소아암NGO한빛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며 소중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계시나요.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청소년암'의 치료를 견뎌내는 아이들과 가족들, 완치자와 가족들을 항상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는 존재,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아청소년암을 치료중인 아이들과 완치자들의 꿈과 희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여름, <제1회 알록달록 그림페스티벌 "꿈을 꾸는 스케치북"> 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소아청소년암의 치료중에 있거나 완치된 친구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응모를 하였는데 총 3개의 주제 중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금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 또는 우리 가족의 모습은?' 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내가(우리가족)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이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해준 친구들의 정성과 꿈과 희망이 담긴 접수된 그림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고 총12점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상을 받게 된 친구들의 12점 작품들로는 2022년 탁상달력을 제작하여 소아암NGO한빛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분들과 소아청소년암 환자 및 완치자 가족분들, 그리고 늘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 등 많은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완성이 된 달력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으며 오히려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림으로 만나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밝고 힘차고 유쾌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림을 보는 동안 미소짓기도 하고 몽클함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많은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들이 함께 희망을 갖고 꿈을 꾸며 감사함을 나누는 멋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아암NGO한빛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한번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꿈을 꾸는 스케치북"에 참여해준 우리 아이들과 완치자분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늘 함께하며 언제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의 학예연구사님들과 소아암NGO한빛 이사님들, 연세암병원 소아혈액종양과 의료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원 이야기(1) 바이달스튜디오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미소를 담아



Q1 후원자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양구에서 바이달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임태경입니다.

2015년 백혈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끝내고 2022년이 된 지금, 건강한 웃음 가득한 소중한 하루 하루를 함께 보내고 있는 시우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Q2 이번에 진행한 활동은 어떤 활동이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번에 진행한 활동은 소아암아이들, 그리고 완치 후 새로운 삶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의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시우가 치료를 받으며 한참 힘들었던 시기에 그것 또한 시우 시간의 일부분이고 제일 예쁜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사진을 열심히 남겨주었고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싶은 사진들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때 모습을 보며 힘들었던 마음을 되뇌기도 하지만 그 모든걸 이겨낸 시우가 대견하고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수있도록 다시 마음을 잡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번 활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암병동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같이 생활했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도움도 많이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나눔이 있으면 뭐든 하고 싶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Q3 재능기부에 참여한 참여자분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후원자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이들이 사진을 찍을 때 조금은 쑥스러워했지만 화면에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쁘다며 금세 즐거워했어.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찍는 것과는 스튜디오에서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남기는건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보고 자신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주는 모습을 보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했어요.) 마음 한켠이 찡하고 감동스러웠어요. 제가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마음에 힐링을 받았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완치가 되어 이쁜 모습으로 성장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모두들 제 눈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했어요. 그들의 순간을 담아주는게 영광 스러웠습니다.

Q4 나눔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나눔은,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1차적 나눔의 의미일 수 있지만 그 기반에는 따뜻한 마음을 주고 감사한 마음을 받는 것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치

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나눔의 크기보다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걸 늘 새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Q5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지금 소아암을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우와 저, 가족들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 처음엔, 언젠간 우리에게도 웃는 날이 올까 하고 늘 힘들어하고만 있었는데, 우리 시우가 힘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걸 보고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일테니까요. 아이에게 힘을 주고 온 마음을 주고 기도해주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최대한 아이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 시간에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지만 서로 힘내며 다독이고 보내다보니 어느새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행복했었던거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쁜 모습도 많이 남겨주세요. 함께 보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할꺼예요. 길고 긴 터널을 지나면 환한 빛으로 연결되는 더 새로운 세상이 있을거예요. 모두 힘내세요!

후원 이야기(2) 권용식후원자

용기를 잃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Q1 후원자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안성에 사는 세 아이(석현, 도윤, 도은)의 부모인 권용식, 진은정입니다. 내년이면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예비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은 생산에서 사람들의 식탁까지 양질의 육류를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2 어떻게 소아암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었나요?

우선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은 저와 제 집사람이 처음부터 소아암NGO한빛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질환이 하나가 있는데, 요즘은 교과서에도 나오고 영화나 메디컬 웹툰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혈우병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소아혈액종양내과에서 유철주 교수님의 진료를 받기 시작한지 7년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달에 한번 진료를 받다 보니 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소아암 아이들의 표정에서 웃음도 보이지만, 아픔과 슬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픔을 알다보니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소아암 아이들의 부모님의 아픔까지도 느껴졌습니다. 그 시기쯤에 저의 아내에게 우리 매년 정기적으로 지자체, 보육시설에 보내는 후원을 병원에 있는 치료를 받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면 어떠냐고 질문을 했고 아내는 흔쾌히 동의해주어 좀 더 후원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방법을 찾다가 연세암병원 소아혈액종양내과 김선희 간호사선생님을 통해서 소아암NGO한빛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3 나에게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아침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할때부터 저녁에 이불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열심히 살아야해”인데요, 저희 아이들도 저 때문에 이 말을 습관처럼 많이 따라하곤 합니다. 나눔이 저한테는 그런거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야하는 좋은 습관처럼 말이지요.
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소아암NGO한빛과 저와의 약속을 꾸준히 실천하려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나눔입니다.

Q4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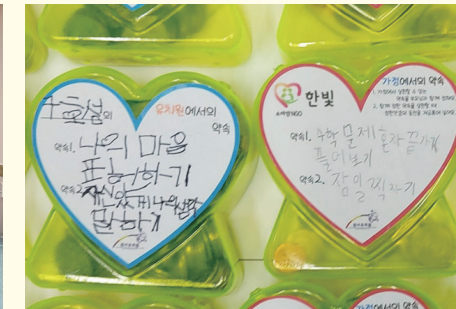
용기를 잃지 말고, 나 자신을 소중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잃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후원 이야기(3) 천사유치원

나눔을 이어가는 천사유치원



2020년 처음 나눔의 인연을 맺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천사유치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이들이 천사들이 되어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진행해주었습니다. 각자 한 개씩의 저금통을 나눠갔으면서 유치원에서의 약속과 가정에서의 약속을 스스로 정하여 약속을 지킬때마다 저금통을 채우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마냥 어린아이로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지킬 약속을 정하고 직접 글로 쓰는 과정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천사유치원의 어린이 후원자들은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을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나눔으로 차곡차곡 쌓아 묵직한 저금통으로 건네주었는데 그 숫자가 85개나 되었습니다. 저금통마다 아이들의 손으로 적은 약속을 볼때마다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며 이 저금통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정성스럽게 채웠는지를 생각하니 가슴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정한 약속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마음 표현하기”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어쩔 수 없는 일에는 화내지 않기”
“친구와 더 깊은 우정쌓기”

어렸을때에는 참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른이 되고 어른으로서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다보니 먼 미래를 계획하기 보단 당장 급한 일들을 하게 되고, 스스로와 대화하거나 약속을 정해서 지키려는 노력도 점점 하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정직한 약속들을 보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느꼈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친구들을 향해 기꺼이 내어 줄 수 있음에 또 한번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천사유치원의 어린이 후원자들이 어린시절 실천했던 나눔의 경험이 앞으로도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개발(MOU체결)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소아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협형 문화 체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공연 및 어린이 공연 진행, 문화 체험행사 초대 등을 통해 소아암 아이들의 건강한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아암치료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단절될 수 밖에 없는 문화체육활동을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통해 보다 가까이에서 소아암아이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 보다 넓고 건강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빛사랑하우스에서 학습 할 수 있는 언택트 체험프로그램이나 서대문지역 초등학생들의 공연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아동대상 미술심리, 성인 및 시니어 대상 MBTI로 알아보는 심리상태 등의 다양한 특강도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함께하여 더 많은 활동들을 소아암친구들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2020년에 MOU를 맺었던 한국기술사회를 통해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MOU를 맺어 본격적인 업무제휴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대/소극장, 대체육관, 수영장, 무용실, 문화교실과 체육사업(아이랑(키즈헬스케어센터),국민체력100)을 운영하며 서대문구민의 건강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공기업입니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그 대상을 소아암 치료중인 아이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체



후원 이야기(4) 이삭희

소아암치료의 따뜻한 동반자 이삭희



2016년 첫 인연을 맺은 이삭희는 이후 매년마다 소아청소년암 친구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치료비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삭희는 이화여자부속유치원의 학부모님들이 모인 봉사단체로 회원분들이 모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아암아이들을 바라보는 회원분들의 마음이 더 애뜻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정말 큰 도움을 보내주고 계시지만 한번도 이삭희의 이름이나 본인들을 내세우지 않고 늘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남몰래 돕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강조하는 부분이 그저 우리의 작은 도움이 소아암치료를 받는 아이와 그 가족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삭희의 지난 2016년부터의 누적 후원금은 총 297,131,000원이 되었고 그 덕분에 총 30명의 환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어 도울 수 있었습니다. 소아암치료의 특성상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환아들이 많이 있고 치료기간도 수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삭희를 통해 지원을 받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도움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또한 가족들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아암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주는 따뜻한 이삭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사랑을 가족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7,131,000 원



2016년~2021년
이삭희 총 후원금

30 명



2016년~2021년
이삭희 후원 치료비지원자 수

10 명



2022년
이삭희 후원 치료비지원예정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올 한 해 이삭희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치료비지원도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다른이의 어려움에 따뜻한 손 내밀어 잡아주신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를 받고 힘이 되고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의 아이가 이 시련을 꼭 이겨내고 건강하고 선한 큰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로 여러 환아들과 다시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꿈을 꾸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비지원 대상자 어머니 인터뷰 중-

자원개발협력 2021 늘해랑프로젝트

사랑으로 완성된 굿즈



2020년에 처음 진행되었던 늘해랑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늘해랑’은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라는 뜻으로 용감한 소아청소년암 친구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은 12명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소아청소년암 친구들이 직접 그린 아기자기한 그림들을 세상속에 선물함과 동시에 소아암으로 치료받는 어린이들에게는 성취감과 재미, 미소를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늘해랑프로젝트를 통해 에코백, 파우치, 키링, 스티커 등 다양한 굿즈를 만들어 판매를 하였고 그 수익금을 소아청소년암환아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저희 소아암NGO한빛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성황리에 프로젝트를 마친 2020년 이후 2021년에는 더 많이, 더 멀리 아이들의 미소가 곳곳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늘해랑프로젝트에는 총 9명의 소아청소년암 친구들이 어린이 작가로 참여해주어 작가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그 결과 총 6종류의 굿즈를 완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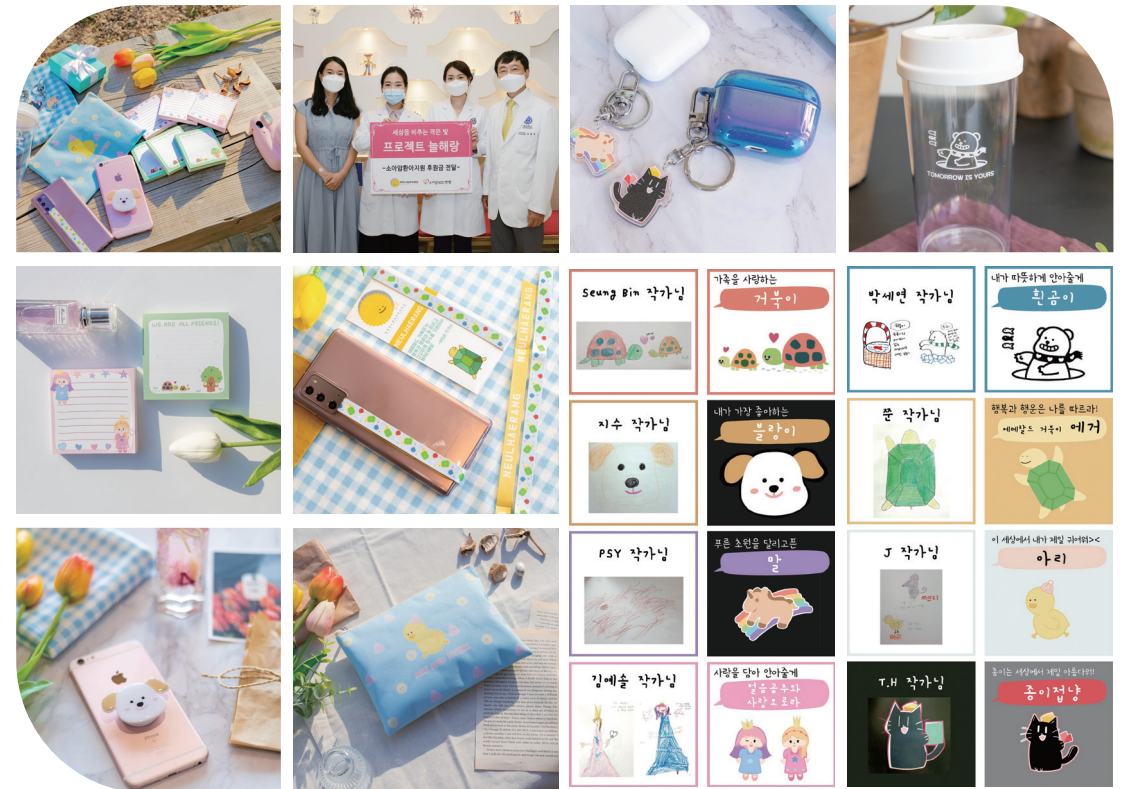
올해의 늘해랑프로젝트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아암NGO한빛을 통해 해피빈 펀딩으로 판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해피빈 펀딩을 통해서 무려 308명의 사람들이 구입을 하였고, 총 8,133,500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해피빈재단에서 너무나 완성도 있는 굿즈에 크게 반겨주며 해피빈 펀딩이 진행되는 내내 많은 배려와 홍보로 도와주셨습니다.

늘해랑프로젝트의 멤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 미술관련 활동에 익숙하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았지만 소아청소년암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너무나 멋진 굿즈 작품들을 탄생시켜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제작과정을 들어보니 멤버 중 한명이 본인의 학업과 병행하면서 몇일 밤을 세워가며 그림을 굿즈로 만들 수 있는 변환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엄청난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었고 다시하기는 수도없이 반복해야 했기에 인내심도 필요했지만 완성품을 보자 그 힘든 시간이 충분히 의미있는 것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늘해랑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늘해랑프로젝트에도 한빛이 함께하며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늘해랑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아이에프 (사)본사랑 제12회 행복나눔 바자회

넓고 깊은 사랑의 마음



지난 10월 15일에 뜻깊은 바자회 나눔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빛사랑하루스를 오래전부터 꾸준히 후원해주고 있는 사단법인 본사랑과 본아이에프에서 제12회 본국·본사랑 행복 나눔 바자회를 맞아 연택트행복나눔으로 후원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본아이에프 본사와 62개 파트너사가 함께 마련한 총 1억 4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총 18곳의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해주었는데 소아암NGO한빛도 후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바자회 나눔을 통해 받게 된 물품은 본죽, 마스크, 배도라지즙, 감귤 등 품목도 다양해서 하우스에 머물고 있는 가족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분들께도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넉넉한 가을선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아이에프와 사단법인 본사랑에서는 매년 나눔행사 때마다 잊지 않고 소아암NGO한빛을 챙겨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우스에 보내주시는 본죽상품권도 소아암가족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어 밖에서 식사를 해야 하거나 병원내에서 병원 밥 이외에 다른 특별한 한끼를 먹고 싶을 때 그리고 하우스에서도 본도시락이나 본죽, 본비빔밥의 메뉴를 드시기 원할 때에는 본죽상품권을 통해 소아암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들은 특히 본도시락의 돈까스를 제일 좋아하고 오랜만에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어머니들은 매콤함 비빔밥을 드시며 행복한 식사를 하십니다.

병원에서와 하우스에서의 생활이 더욱 풍성할 수 있게 늘 잊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최복이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치료기간이기에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지치기 마련인 투병생활 중 누군가의 따스한 관심과 응원은 큰 위로가 됩니다. 벌써 10여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후원의 손길을 이어가고 계시는 최복이 이사장님의 사랑은 소아암 치료중인 가족들에게 언제나 잔잔한 감동과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깊고 넓은 사랑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사랑을 가족들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이야기(5) 더메리프로젝트

12월의 산타 더메리프로젝트



2021년 12월의 어느 토요일. 매년 겨울이 되면 한빛의 산타가 되어주는 더메리프로젝트(THE MERRY PROJECT 2021)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한빛사랑하우스로 방문 해주셨습니다. 하우스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쓸쓸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사용할 휴지, 세제, 냄비 등 생필품들도 넉넉하게 챙겨서 여러 회원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청소년 봉사팀이 구성이 되어 5명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 와서 하우스에 놓을 트리는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에 사전에 하우스에 가족들이 없는 시간대를 확인하였고, 방문하는 아이들도 코로나 여부를 확인 한 후 손소독을 깨끗이 하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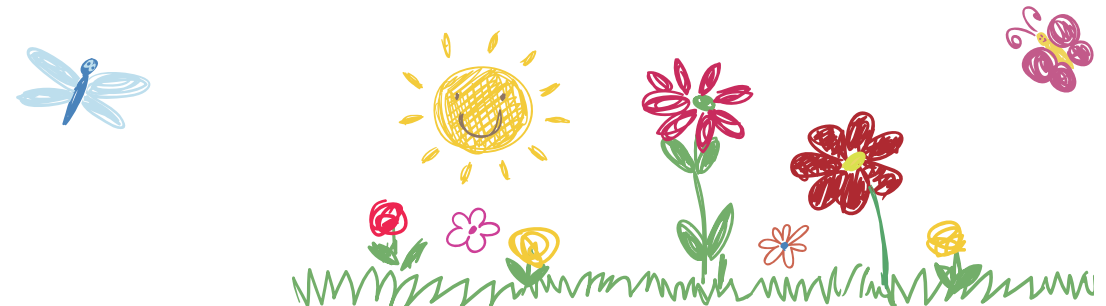
오랜만에 밝은 청소년 봉사자들을 만나게 되니 하우스가 한결 생기있고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더메리프로젝트의 회원인 어머님들과 아이들의 뜻깊은 나눔과 봉사는 우리들에게도 더메리프로젝트의 회원분들에게도 또한 함께 한 청소년 봉사자 친구들에게도 너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의 마음을 대를 이어 나누는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이들도 주말 시간을 내서 하는 봉사활동에도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더메리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지금 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 뿐만 아니라 소아암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멋진 트리와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응원해준 더메리프로젝트의 회장님 및 모든 회원분들께 매년 한빛의 소중한 12월의 산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업소개 치료비지원사업

소아암 아이들을 응원하는 방법



소아암의 연간 발생률은 100만명당 18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1000~1500명의 어린이가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집계되는 전체 암환자 중에서 1%미만에 해당됩니다. 성인 암환자에 비해 신규 환자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도는 낮지만 소아암은 국내 아동 질병 사망원인 1위로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임을 감안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아암의 치료기간은 처음 발병이후 최소 2년에서 때로는 10여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완치된 이후에도 재발의 가능성도 있기에 완치판정 이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긴 과정속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더 보듬어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이 시기를 함께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긴 치료를 하기 위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너무나 중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아암NGO한빛에서는 이러한 소아암친구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아암가족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이로 인하여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여 가족간의 건강성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진행중인 치료비지원사업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16명에게 치료비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아이들을 돕기 위한 치료비지원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소아암친구들을 돕기 위해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사랑과 응원으로 마련된 치료비지원 사업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힘내기를 응원합니다.



후원 이야기(6)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두 번째 나눔



생일은 누구에게나 특별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에게 생일은 창립기념일인데, 이때를 맞아 각 기업에서는 다양한 의미있는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2019년 소아암NGO한빛과 처음 인연을 맺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도 창립기념일을 맞아 직원들이 직접 실천

하는 나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그려준 벽화는 아직까지도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에 남아 우리 하우스를 계속 예쁜 모습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모두가 알 듯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를 휩쓰는 바람에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에서도 외부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2021년 겨울이 다가올 즈음에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이지만 한빛과의 만남을 통해 도울 수 있었던 소아암 아이들과 하우스가 생각이나서 돕고자 하는 마음에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2019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벽화를 그려주시고, 청소도 하며 몸과 마음으로 우리 하우스를 위해 큰 도움을 주었었는데 그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이유는 긴 시간에도 지친기색없이 마지막까지 웃음으로 함께해 주셨던 임직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연락을 주신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측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활동봉사는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하우스에서 그동안 필요했는데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과 필요한 생필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후원을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4구 인덕션, 밥솥, 후라이팬, 세제 등을 구입하여 하우스에서의 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특별하고 의미있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사랑을 전해주신 대표님과 모든 임직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이야기(7) 한국소아암재단

웃으며 나누는 반가운 선물

한국소아암재단은 한빛사랑하우스와 2017년부터 후원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재단입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수술비 및 병원치료비 지원사업, 정서지원사업, 외래치료비 지원사업, 모금지원활동사업, 헌혈증 지원사업, 가발지원사업, 쉼터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소아암NGO한빛과 마찬가지로 소아암환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재단입니다. 한국소아암재단에서는 후원물품 모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매번 모아진 후원물품의 일부를 한빛의 소아암가족들을 위해 나누어줍니다. 또한 이마트의 후원물품도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주는데 휴지, 물티슈, 키친타월, 장난감, 기저귀, 마스크, 쌀 등 다양한



물품을 하우스로 직접 가져다주십니다. 보내주시는 생필품들은 하우스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많아서 하우스에 머물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보내주시는 레고, 자동차 등 장난감들도 연령에 맞는 아이들에

게 나눠주어 기쁜 선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언제나 한차 가득 후원물품들을 가지고 오실때마다 산타할아버지를 맞이하는 어린이같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물품들을 차에 싣고 하우스로 가지고 오셔서 짐을 옮기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는 한국소아암재단의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따스한 사랑 늘 잊지 않고 가족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이야기-박미나 코디네이터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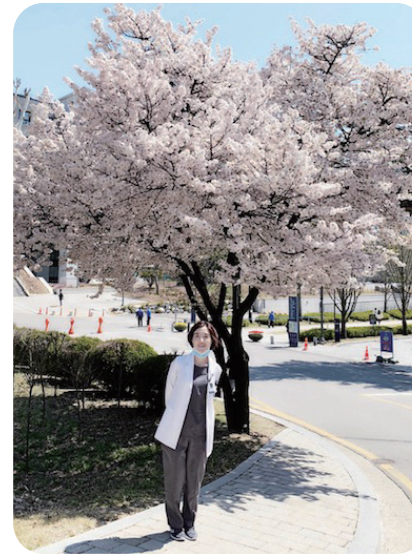


아이들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민 없이 선택했던 소아과였습니다. 하지만 소아과 중에서도 응급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중증도가 높은 아이들이 많다고 소문이 난 소아혈액종양과로 정식 간호사 발령을 받게 되고 병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났던 소아암 아이들의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마음속에 박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돌보며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저의 마음을 다잡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일이 서툴고 과중한

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에도 웃으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들고 지친 치료에도 불구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밝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유난히 마음에 남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업무에 적응이 되었을 간호사 3년차 무렵, 눈앞에 쌓여있는 업무만이 아니라 예쁜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절 유난히 저를 많이 따라주었던 아이입니다. 미숙한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최고의 선생님으로 불러주며 저에게 힘을 주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그 아이를 볼 생각에 병원에 출근하던 길이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고 그때 저는 “부족한 나를 항상 최고의 선생님으로 불러준 OO아, 앞으로 OO이처럼 아픈 친구들을 만날 때 OO이 최고의 선생님으로 부끄럽지 않게 잘 할게”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짐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소아암을 진단받고 마음이 무너져내린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낯선 병원생활과 어려운 치료 가운데 지식의 부족으로 두려워하는 부모님들께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병동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소아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고, 지금의 아픈 상처가 오히려 아이들을 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얼마 전 치료를 위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카테터를 제거하러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치료를 위해 카테터를 삽입한 날에도 손에 꼭 쥐고 잤다고 하는데, 힘든 치료를 용감하게 다 마치고 카테터를 제거하는 날에도 아쉬워서 손에 꼭 쥐고 잤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를 위해 카테터를 깨끗하게 소독해서 귀여운 인형에 달아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경험하겠지만 그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이미 극복해낸 대단한 아이인지 스스로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해내야만 하는 치료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너무 아픔의 시간만은 아니기를,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씩씩하고 용감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 이용자이야기 마리암 어머니

행운은 우리 가족의 행운



안녕하세요!

소아암 환자인 Dauletbek Mariyam(마리암)의 엄마입니다. 저희 가족은 2019년 6월에 둘째인 마리암의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암의 오빠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아이를 반드시 살릴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안고 첫째는 본국의 할머니에게 맡겨둔 채 오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마리암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절박함에 결국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는 낯선 한국땅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병원을 통해 알게 된 한빛하우스에서 살게 되면서 하우스를 관리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많은 배려와 도움을 받으며 점차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저희 딸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주치의 이신 유철주 교수님과 세브란스 병원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 특히 하우스를 관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과 관리하시는 분들의 친절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우스에는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과 보호자들을 위해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빨래 건조기, 세탁기 같은 가전 제품을 비롯해서 침구류, 주방용품, 욕실용품까지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쌀, 식용유, 밀가루 등 식료품을 계속 제공해주었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 작업도 수행했습니다. 쉼터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 저렴한 가격의 마트와 24시간 편의점이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어 매우 편했으며 치안이 좋아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족은 2년간 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하우스에 놀이방도 만들어주어 우리 아이가 혈액수치가 낮아서 외출을 하지 못할 때에는 놀이방에서 놀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분들은 새롭고 흥미로운 장난감을 갖다주셔서 아이가 지루하지 않고 매우 행복해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 한국에 와서 너무 막막해서 힘들었던 때에 힘이 되어 주실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너무 큰 행운이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도 없고 언어도 다른 한국에 도착한 저희 가족에게 이러한 환경과 친절함은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절실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우스에 살았던 저희를 비롯해 다른 가정을 위해 선뜻 기부해주신 후원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한빛 NEWS



1. 바이달스튜디오 사진촬영 재능기부 활동 진행

1월11일~2월28일까지 소아암치료중인 환아의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바이달스튜디오(고양시 덕양구)에서 개인 및 가족 무료 사진촬영을 진행하고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선물하는 재능기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아암환아 설키트 선물 전달

2월9일(화)에 한빛사랑하루스에 머물고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소아암가족의 설명절을 함께 축하하기 위한 설키트를 만들어 각 가정마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3. 무주YG재단 신학기 선물 전달

무주YG재단의 지원으로 신학기를 맞이하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인 트레이더 리유저블컵세트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과 하우스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4. 2021 소아암가족 온라인 미니운동회

5월29일(토)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온라인 미니운동회를 최초로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함께 얼굴보고 인사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5. 늘해랑 프로젝트 해피빈 펀딩 진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늘해랑에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소아암아이들의 그림을 굿즈로 만들어 판매하는 늘해랑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아암NGO한빛의 협력으로 해피빈 펀딩을 통해 3주간 판매되었고 텀블러, 파우치, 키링, 떡메모지, 폰스트랩, 그림톡 등 6종류의 굿즈를 판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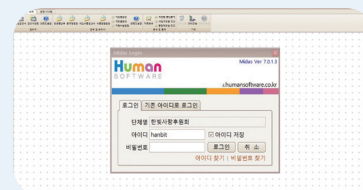
6. 한빛사랑하우스 노후기기 교체

한빛사랑하우스는 사용하는 가족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하우스에서의 삶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기기인 보일러, 에어컨, 냉장고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7. 한빛사랑하우스 정기 소독

한국기술사회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지원으로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의 내부와 외부의 정기소독을 진행하여 철저한 방역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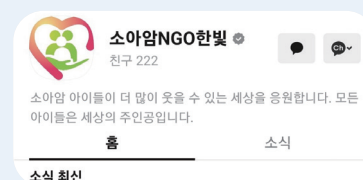
8.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주)휴먼소프트웨어의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되고 소아암가족을 위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 현대차정몽구재단과 함께하는 2021 소아암 온드림 어린이 힐링캠프

9월~10월에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지원과 연세암병원 소아혈액종양과,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의 연합으로 펜션과 호텔에서 소아암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캠프 지원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10월 23일(토)에 진행하였습니다.



10. 카카오톡 채널 홍보 시작

홍보의 다양화 및 보다 빠른 소식 전달을 위해 카카오톡에서 '소아암NGO한빛' 채널을 개설하여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1. 서대문문화체육회관 MOU 체결

10월 22일(금)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MOU를 체결하게 되어 소아암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2021 언택트 송년잔치

12월24(목)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오프라인 행사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생방송 온라인 송년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접수부터 큰 호응으로 함께 해준 소아암가족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도전에도 큰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준 여러분 덕에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2021 후원 NEWS



1. 2020년 연세의료원 교직원 성탄절 기념예배의 헌금

2020년 연말에 진행된 연세의료원 교직원 성탄절 기념예배의 헌금 12,285,000원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후원해주셨습니다. 소아암환아 및 가족들을 위한 한빛사랑하우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한국소아암재단 생필품 외 후원

(재)한국소아암재단에서는 소아암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한빛사랑하우스에 화장품세트, 마스크, 쌀, 장난감, 아기용품(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휴지, 물티슈, 후라이팬 등), 놀이&교육키트 등을 후원해주었습니다.



3. 세브란스신협협동조합 생필품 후원

2016년부터 시작된 나눔이 올해 설명절과 추석명절에도 진행되어 세브란스신협협동조합에서 다양한 생필품(냄비세트, 마스크 등)을 후원해주었습니다.



4. 연세세브란스 사회사업팀 KF80마스크 2500장 후원

2월 17일에 연세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소형 KF80마스크 2500장을 후원해주었습니다. 하우스에서 지내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드렸습니다.



5. 서대문구청 비말마스크 100장 후원

2월 26일에 서대문구청에서 비말마스크 100장을 후원해주었습니다. 몇 년 전 서대문구청장께서 하우스에 방문한 이후 꾸준히 우리 하우스에 도움을 주어 소아암 아이들을 후원해주는 서대문구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6. 한국교와기린(주) 차량용 컵홀더, 치약짜기 후원

4월 19일에 소아암가족을 위해 차량용 컵홀더 80개와 치약짜기 120개를 후원해주었습니다.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리며 소아암가족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7. 공동복지관 자외선크림 등 후원

4월 26일 자외선 크림 240개와 5월 26일에 현미 100kg, 유모차2대, 캐리어 2개를 후원해주었습니다. 자외선 크림은 가족분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드렸고, 현미와 유모차, 캐리어는 하우스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8. 권용식 후원자 소아암환아 치료비 후원

10월 6일과 12월 15일에 착한푸드(경기도 안성 소재)를 운영하고 있는 권용식 후원자께서 소아암아이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치료비가 시급하였던 소아암아이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봉사팀 놀이키트 전달

5월7일과 11월 29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팀에서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없는 소아암환아들을 위한 놀이키트(의료지식 알림)를 제작하여 전달해주었습니다.



10. 본아이에프 직원 수제비누 44개 후원

6월 10일에 오랜기간동안 도움을 주고 있는 본아이에프의 직원분께서 직접 만든 수제비누 44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만든 분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들어간 알록달록하고 예쁜 비누를 나눠드리자 가족분들께서 많이 좋아해주셨습니다.



11. 코코스타 마스크팩패키지 1236세트 후원

코코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함정수 대표님께서 6월 17일과 마스크팩패키지 436세트와 8월 13일 500세트, 12월 3일에 300세트를 후원해주셔서 소아암 가족들에게 넉넉하게 나눠드렸습니다. 따뜻한 나눔의 마음 감사드립니다.



12. 한국기술사회 마스크 4000장 등 후원

2020년도에 MOU를 체결한 이후 봉사와 나눔으로 소아암가족들을 돕고 있는 한국기술사회에서 7월 2일에 마스크 2000장, 7월 21일에 물티슈, 손소독젤, 12월 9일에 마스크 2000장, 생수 1000개를 후원해주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13. 놀해랑 프로젝트 해피빈 펀딩 후원금 전달식

7월 23일에는 소아암아이들이 그림 그림을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한 놀해랑에서 수익금 전액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응원이 깃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14. 본아이에프 정기 식자재 및 바자회 물품 후원

한빛사랑하우스 소아암가족을 위한 정기 식자재 및 상품권 나눔과 더불어 제 12회 행복나눔바자회 '언택트행복나눔' 행사를 통해 즉, 스프, 굴, 배춧 등 다양한 식재료 및 마스크를 후원해주어 한빛사랑하우스에 머물고 있는 소아암 가족분들에게 나누어드렸습니다.



15. EG83 소아암아이들 후원금 100만원 후원

11월 1일에 천사유치원 장태욱 원장님이 속해 있는 EG83(2017 올해의 이화인/이화여자대학교83모임)에서 소아암치료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10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16. (주)제이제이무역 항균시트 52장 후원

11월 22일에 소아암NGO한빛의 이사로 계시는 김지중 이사님이 운영하시는 (주)제이제이무역에서 항균시트 52장을 후원해주셔서, 하우스 곳곳을 항균시트로 안전하게 관리하였습니다.



17. 미세스산타 생필품 후원

11월 23일에 유신형 대표님께서 미세스산타의 이름으로 한빛사랑하우스에 생필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늘 연말마다 한빛을 통해 소아암가족들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8. 이승현 어머니 간편찜쌀누룽지 3000개 후원

12월 1일에 이승현 어머님께서 소아암가족들을 위해 간편찜쌀누룽지 3000개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을 때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가 되어 줄 것입니다.



19. (주)위드 KF80마스크 500장 후원

12월 9일에 한국기술사회를 통해 연계된 (주)위드에서 KF80마스크 500장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마스크는 소아암가족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20. 더메리프로젝트 생필품 후원

12월 11일에는 매년 겨울마다 한빛의 산타가 되어주는 더메리프로젝트에서 생필품(냄비6개, 후라이팬6개, 물티슈6세트, 세제6통, 키친타올6세트, 트리꾸미기)을 후원해 주셔서 하우스 곳곳에 잘 나누었습니다.



21. 이삭회 소아암환아 치료비후원금 전달식

12월 21일에는 이화여자부속유치원 학부모 봉사단체인 이삭회에서 온라인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 50,522,000원을 전액 후원해 주어서 소아암환아 치료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2. 한국오노약품공업(주) 창립기념일 기념 후원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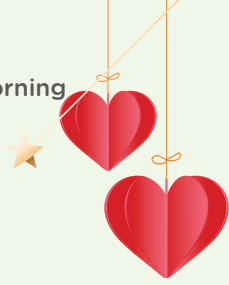
12월 23일에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오노약품공업(주)에서 창립기념일을 맞아 5,000,000원을 후원해 주셔서, 한빛사랑하우스의 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을 교체 및 구입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3. 천사유치원 후원금 전달

12월 24일 천사유치원(서울 양재동)에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천사들의 후원행사를 진행하여 소아암NGO한빛에 후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마다 저금통에 모은 후원금과 원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선생님들의 사랑을 모아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2021년 결산서

(2021.01.01~2021.12.31)

| 42

계정과목	결산액	계정과목	결산액
세입		세출	
1. 전년 이월금	345,924,176	1. 소아암 NGO 한빛 사무국 운영	
전년이월금 소계	345,924,176	1) 인건비	
2. 후원금 수입		1-1) 급여 및 수당	58,447,750
1) 정기후원		1-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6,000,000
1-1) CMS후원	68,275,655	1-3) 사회보험부담금 및 지방세	6,924,210
1-2) 개인 계좌이체 후원	41,535,000	1-1) 인건비 소계	71,371,960
1-3) 단체 계좌이체 후원	8,675,000	2) 운영비	
2-1) 정기후원 소계	118,485,655	2-1) 차량관리 및 유지비	1,363,250
2) 특별후원		2-2) 물품구입비	15,274,641
2-1) 하우스 이용자 후원	38,875,000	2-3) 여비교통비	394,000
2-2) 해피빈	67,078,400	2-4) 수용비 및 수수료	2,507,410
2-2) 특별후원 소계	105,953,400	2-5) 기타 운영비	46,315,176
3) 지정후원		1-2) 운영비 소계	65,854,477
3-1) 치료비지원	70,522,000	3) 홍보	4,943,072
3-2) 진료상담 프로젝트	50,000,000	4) 자원개발 및 관리	9,599,411
2-3) 지정후원 소계	120,522,000	소아암NGO한빛 사무국 운영 소계	151,768,920
4) 비지정후원(개인)		2. 한빛사랑하우스운영(소아암센터)	
4-1) 비지정 개인후원	23,850,000	1)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4-2) 비지정 단체후원(기업,재단)	20,310,060	1-1)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27,131,839
2-4) 비지정후원(개인) 소계	44,160,060	1-2) 정수기렌탈요금	872,600
후원금 소계	389,121,115	1-3) 가스요금	4,382,530
3. 금융자산 매입		1-4) 방송수신요금	378,400
금융자산 매입 소계	358,883,000	1-5) 방역요금	1,440,000
4. 잡수입		1-6) 전기요금	3,800,960
1) 이자수입	474,835	1-7) 수도요금	1,381,970
2) 기타잡수입	1,578,380	1-8) 인터넷 및 전화요금	975,730
잡수입 소계	2,053,215	1-9) 시설개보수비	7,458,000
세입합계	1,095,981,506	1-10) 재산세	945,720
		2-1)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소계	48,767,749
		2)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2-1)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6,100,166
		2-2) 정수기렌탈요금	519,700
		2-3) 가스요금	2,077,360
		2-4) 방송수신요금	316,800
		2-5) 방역요금	1,272,000
		2-6) 전기요금	1,043,750
		2-7) 수도요금	237,360
		2-8) 인터넷요금	0
		2-9) 시설개보수비	0
		2-10) 재산세	2,254,810
		2-2)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소계	13,821,946
		한빛사랑하우스운영 소계	62,589,695
		3.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소계	336,201,200
		4. 치료비지원사업	
		치료비지원사업 소계	70,834,550
		5. 소아암환아지원사업	
		1) 완치자지원사업(기린아&꿈드림)	0
		2) 소아암가족지원사업	8,627,786
		소아암환아지원사업 소계	8,627,786
		6. 잡지출	
		잡지출 소계	0
		세출합계	630,022,151
		세출합계(차기이월금 제외)	465,959,355

2. 후원회원

(2021년 1월~12월)



| 43

1. 정기후원회원

5천원	강미영, 강영린, 김운영, 김은채, 김희은, 박정순, 배정임, 이선희, 이희경, 조미영, 조은희, 한유영
1만원	김춘희, 강나영(이순애), 강보성(강성진), 구본미, 권수영, 권영준, 김경숙, 김두진, 김선정, 김영숙, 김은경, 김재훈, 김지선, 김진아, 김해용, 김혜숙, 김경미, 김경민, 김병천, 김소라, 김영은, 김영희, 김유민, 김중수, 김주희, 김진소, 김현이, 김현정, 김현진, 김혜연엄마, 김희진, 나수연, 도현순, 모명환, 모민희, 목현희, 문숙희, 박경자, 박은재, 박정선, 박태선, 박미나, 박선정, 박영란, 박옥선, 박은선, 박재준, 박현준, 방사무엘연상, 방인숙, 백윤수, 백일영, 백선순, 서진근, 서연자, 석미영, 성정숙, 성세희, 손유진, 송기원, 송미란, 송수경, 송현주, 심성정, 심형준, 안상민, 양재순, 양준모, 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 오미영, 우남철, 원호성, 유경화, 유연숙, 유기성, 유주영, 윤성현, 윤옥진, 이광환, 이은정, 이종호, 이주현, 이철수, 이감우(이종업), 이경재, 이규현, 이다영, 이승환, 이영혁, 이영희, 이은우(이종업), 이인숙, 이정순, 인수진, 장수연, 정규성, 정서윤, 정행훈, 조길수, 조형희, 조근행, 조미영, 지승연, 최 문근, 최병숙, 최상민, 한경미, 현승준, 황정원, 황인희, 황지율, 황한별
2만원	박은영, 강유미, 고형길(용천가스), 권순호, 김왕배, 김현숙, 김현정, 김규광, 김나원, 김라임, 김미숙, 김미희, 김선화, 김수경2, 김수현, 김영자, 김인기, 김재실, 김종욱, 김지영, 김진희, 김혜경, 김혜양, 나윤경, 남유정, 노유원, 민주원, 박은령, 박현아, 박현우, 박희옥, 배석진, 서복례, 서연제(서정혁), 석윤희, 신현주, 양해란, 유경아, 유기옥, 윤수한, 윤이승, 윤정애, 은종선, 이동구, 이명순, 이배환, 이유미, 이윤선, 이지순, 이현빈, 임지선, 임규민(유경아), 임재순, 장미경, 장진희, 정광호, 정인호, 조달남, 진정문, 최영애, 최인경, 하미경, 한재원, 한수영, 한윤혁, 한정화, 한혜선, 현도윤, 홍관욱, 홍영숙, 황경화
2만 5천원	등촌교회사라전도회, 등촌교회안나1,3전도회, 등촌안나2,4전도회, 등촌교회안나전도회, 대한예수회
3만원	강진희, 고경민, 고애란, 국아영, 김경숙, 김광재(최은희), 김수연, 김예준(김명희), 김지윤, 김재윤, 김현진, 김홍익, 박건희, 박성희, 박승원, 박유선, 송서원, 신동성, 신형주, 유재덕, 이경민2, 이승순, 이은미, 이정원, 이진희, 이채윤, 장현진, 정윤환, 주형준, 최병철, 최수영, 한상원, 홍순명
5만원	강창무, 구인옥, 김도연, 김은아, 김지혜, 김형기(김예준), 김혜림, 나오미선교회, 동아스지, 류인옥, 박민지, 박상민(박세진), 서현우, 송민정, 신윤정, 신희진, 이승현, 창천교회병원봉사회
10만원	강명선, 고복희, 권승연, 권용식, 김선희, 김영준, 산돌교회, 이배영, 이지은, 장준영, (주)에이제이무역, 한승민
20만원	이지은, 정만희, 김미영
40만원	(재)청아장학재단
100만원	유철주, 이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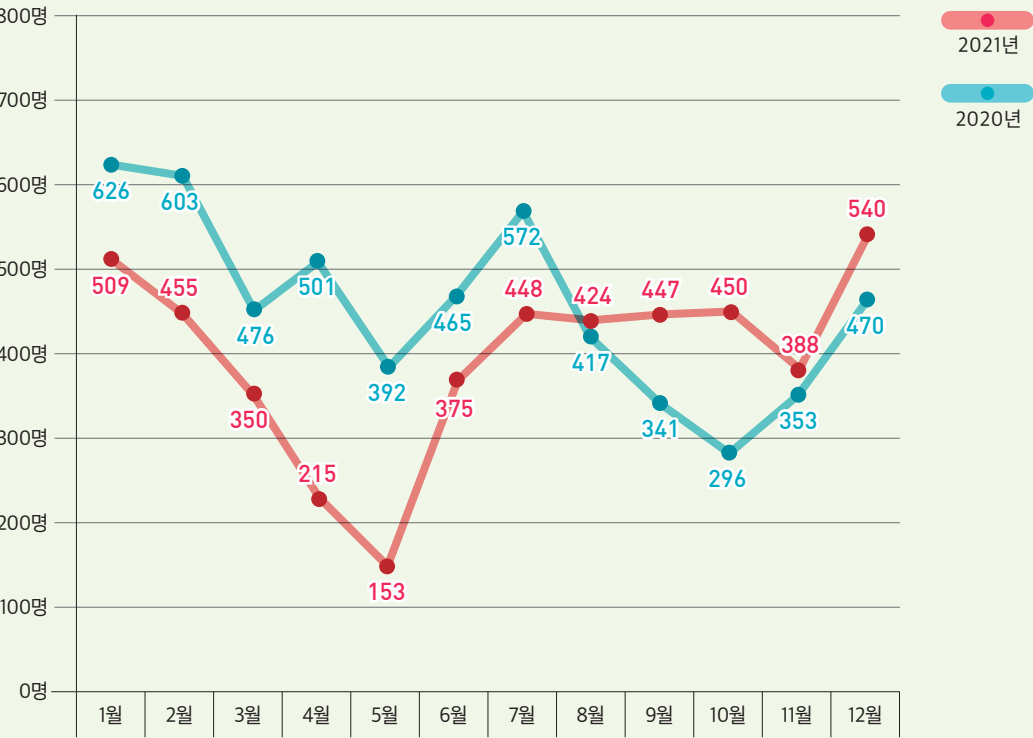
2. 일시후원회원

금액	후원자명	금액	후원자명
20,000	강나경, 강민주, 고정현, 권하준, 김민간, 김상현, 김서연, 김일진, 김주희, 김지민, 김지안, 김채영, 김채원, 김평화, 마영주, 박세연, 박옥선, 박정호, 박준우, 박지상, 박찬빈, 박현식, 배준성, 석지원, 송영진, 송이소, 오정수, 오젤마, 우현우, 이건학, 이 솔, 이예빈, 임준영, 장하은, 장현지, 전우선, 정가은, 정다희, 정서윤, 정재엽, 정지아, 조영인, 조하윤, 주하음, 최동균, 최우주, 최유은, 현도윤, 홍다남, 황예찬	200,000	김원형(김효준), 변병숙, 황윤솔
		220,000	노유원
		300,000	강예준, 배연정(강선자), 이순복
		320,000	신혜경
		500,000	김진소, 조근행, 창천교회병원봉사회, 태상운(태세준)
		600,000	이강준
25,000	천명순	1,000,000	EG83, 권리원, 김현이
30,000	서연제(서정혁), 이상정	1,120,000	김경흠
40,000	김경민, 임승재, 허태웅	1,500,000	강민주, 한유진
50,000	공수희(오승환), 김예준, 김유정, 박병학, 양신영, 윤이은, 이지영, 정봉섭, 표승우, 황민혁	1,525,060	천사유치원
		2,000,000	김준성
		3,000,000	박서율
60,000	조규협	3,050,000	장준영
100,000	강여민, 고현진, 김명옥(김영옥), 김민석, 문지원, 민주원, 박영은, 박유진, 박현석, 송민선, 이승현(이상옥), 이영준, 정성훈(정다희), 정예찬, 조예진, 주명노, 최은주, 한태범, 황지율	4,000,000	현금천사
		5,000,000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12,285,000	연세의료원
120,000	강이안, 신희명(신훈배), 이은찬	20,000,000	권용식
140,000	유상엽	50,000,000	이은경
150,000	김수현	50,522,000	이쌍희

3. 한빛사랑하우스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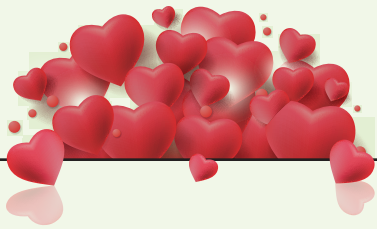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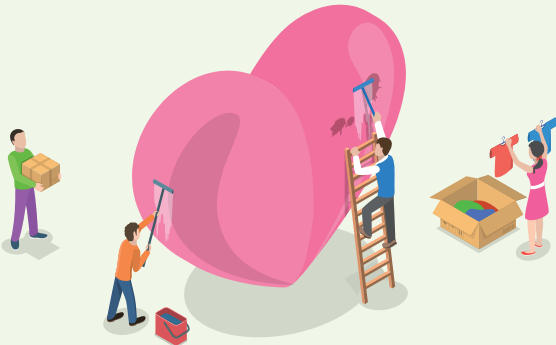
1. 2021년 이용현황 (1월~12월) (단위:일별 실인원 합계)

① 이용현황표



단위 :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환아	192	214	151	87	51	156	198	195	203	199	179	225	2,050
보호자	317	241	199	128	102	219	250	229	244	251	209	315	2,704
합계	509	455	350	215	153	375	448	424	447	450	388	540	4,754



2. 후원물품내역

1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치킨1box,김 6box, 상품권50장), 소아암재단(쌀110kg,마스크 KF94 소형,덴탈대형, 콤팩트세트120개), 이민숙(음식물종량제봉투50장)
2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치킨1box,상품권50장), 소아암재단(쌀40kg, 테팔냄비3중세트2box, 종이컵1,000개3box, 두루마리화장지36롤1묶음, 틈새수납장1개, 3단서랍장1개, 분유3통, 에듀테이블2개, 레고닌자고1개, 레고아이디어스2개, 라마즈토이2개, KF94마스크(대형1,500개, 소형1,500개), 놀이키트 75개), 박성희(쌀10kg, 한과1box), 이예림(사과1box), 신헌생활협동조합(스팸선물세트 외 23건), 연세세브란스 사회사업팀(KF94소형마스크2,500개), 박성현(쌀20kg), 서대문구청(비말마스크 100장)
3월	본사랑(쌀40kg,김치40kg, 치킨1box, 상품권 50장), 소아암재단(쌀40kg, 된장1kg), 유철주교수(참기름1병), 박건희(손세정제 ,휴지, 세탁세제), 윤미영(텀블러, 그릇, 주방용품)
4월	본사랑(쌀40kg,김치30kg,치킨1box,상품권 50장), 소아암재단(쌀40kg,기저귀14box, 휴지3롤, 티슈2, 차렵이불2, 기저귀5개, 테이블1, 에듀테이블1, 장난감1개), 김계순(옷, 시계, 그릇 등), 공동종합사회복지관(선크림2box), 한국교와기린(주)(차량용컵홀더 80개, 치약짜기 120개)
5월	본사랑(쌀40kg, 김치30kg, 치킨1box, 상품권 50장), 소아암재단(쌀40kg 소형KF94,80마스크100장), 공동종합사회복지관(현미100kg, 캐리어2개, 유모차2대), 연대의대봉사팀(메디컬키트32개)
6월	본사랑(쌀200kg, 김치100kg, 치킨2box, 상품권 300장), 소아암재단(쌀40kg, 휴지, 껌티슈, 손소독제겔, 물티슈, 크린장갑, 페이스타올, 목베개, 양치세트, 선풍기, 행거, 바디필로우, A4 8box 등), 김태빈(멸치액젓6병), 박현석(미니단호박1box), 코코스타(마스크팩패키지 436개), 본아이에프(수제비누44개)
7월	소아암재단(쌀40kg, 손선풍기160개, 스티커38개, 수첩40개, 열쇠고리45개, 스프레이150개, 미세차, 컬러링북), 한국기술사회(KF80 마스크 2000개, 소독겔40개, 살균스프레이9개, 물티슈25개)
8월	소아암재단(쌀40kg, 장난감, 홍삼, 기저귀스탠드 외), 코코스타(마스크팩패키지 500개)
9월	소아암재단(쌀40kg, 농산물꾸러미3box, 놀이키트7box, 황한별(사과 1box), 이다근(사과 1box), 신헌(생활용품 32점)
10월	소아암재단(쌀40kg), 함태현(쌀50kg), 김혜연(쌀40kg), 본아이에프(바자회물품, 족, 굴, 마스크 외)
11월	고정현(굴 2box), 김성현(쌀20kg), 박성희(쌀10kg,치약20개), (주)제이제이무역(향균시트52장), 미세스산타(세제,휴지,포도씨유 외), 연대의대봉사팀(놀이키트 23개)
12월	이승현(간편참쌀누룽지 100box), 소아암재단(쌀40kg), 한국기술사회(마스크2000장, 물1000개), 김태빈(시금치10kg), 박현석(시금치10kg), 코코스타(뽕마스크세트300개), (주)위드(마스크500매), 더메리프로젝트(밤비, 후라이팬, 물티슈 외)



소아암 아이들의 썬샤인 프렌즈가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2004년에 설립된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입니다.

●한빛은 병원 가까이에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를 마련하여

소아암 아이들의 통원 치료를 지원합니다.

●한빛은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소아암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빛은 학습지도가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에게 학습봉사자를

1:1로 연계하여 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빛은 소아암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 나들이프로그램,

여름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잔치 등의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합니다.

회원 형태

개인후원자	매달 CMS 및 계좌이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단체후원자	매달 혹은 일시적으로 단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물품후원자	한빛사랑하우스에 필요한 물품, 식재료,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시는 분

후원 방법

① CMS 납부

홈페이지 가입	메인페이지 [후원하기] 혹은 [후원현황→후원신청→정기후원] 입력후 저장
후원신청서 작성	소식지내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FAX, E-mail, 우편으로 발송
전화 가입	소아암NGO한빛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을 요청

② 계좌이체 납부

은행 계좌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 입금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안내	우리은행 1006-001-303251 한빛사랑후원회
--------	------------------------------

③ 물품후원

한빛사랑하우스에 후원하고자 하는 물품을 직접 하단의 하우스 주소로 보내주세요.

소아암NGO한빛

주 소 : (0378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 (창천동 53-60) 2층

연락처 : Tel : 02-3142-0675 / Fax : 02-3142-0670 / E-mail : hanbit_2004@naver.com

※ '썬샤인 프렌즈'는 소아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빛의 후원자입니다.



정회원

썬샤인 프렌즈

정기후원(CMS) 신청서

■ 회원 정보

회원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체)		
성명		직장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후원 금액

월 정기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CMS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CMS, 금융기관, 통신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며 후원자정보는 공익을 위해 타 NPO단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약관)에 동의하며,
소아암NGO한빛의 정기후원(CMS출금이체)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포토에세이

“함께 있기에 늘 행복한 우리 가족”



<2021 제1회 그림페스티벌 초등학교학년부문 2등 수상작>

우리 가족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이들의 기억속에 우리 가족이
정답게 함께 모여 까르르 웃음짓는 모습이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바라만 봐도 한껏 기분이 좋아지고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어보아요!

맑은 하늘 만큼이나 환한 당신의 웃음은 언제나 행복입니다.